

# 전주시, 국가대표 녹색도시 선정

###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도시숲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가로수 '첫마중길'

콘크리트도시보다는 녹색생태도시를 만들어낸 전주시가 국가대표 녹색도시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2017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녹색도시 우수사례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한 우수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시상해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 전파로 사업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 도시숲 분야의 호동골 자연생태

체험학습원과 가로수 분야의 첫마중길로 공모를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했으며, 시는 상위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와 최종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심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전주시가 제출한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이번 산림청 평가에서 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 기능 등 숲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평가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먼저, 도시숲 분야의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의 경우, 시가 옛 양묘장 부지와 쓰레기매립 부지를 활용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 체험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해 현재 전주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찾는 장소가 됐다.

또한, 가로수 분야의 첫마중길은 전주한옥마을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가대표 관광명소가 되면서, 기차를 타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아 전주역에서 명주골네거리까지 백제대로 850m구간이 명품 가로수길과 문화쉼터로 조성된 곳이다. 첫마중길은 자동차만 빠르게 지나쳤던 도로를 사람이 찾고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 친체면 역세권 경계를 되살리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첫마중길이 조성되면서 기존 직선도로도 차량 속도를 줄여 안전한 S자형 곡선도로로 바뀌었다.

산림청은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전국에 널리 전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에서 이틀간 전국 지자체 도시숲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도시숲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상기관에 대한 시상과 사례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사례인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첫마중길에 대한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전주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전주를 녹음이 우거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생활권 곳곳에 나무를 심는 운동 숲 프로젝트도 전개하는 등 녹색생태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인 녹색생태도시 명품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권에 도시숲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국가지점번호판 100여 곳 설치

### 긴급상황시 위치 파악

전주시는 주소가 없는 등산로·전변 산책로 등 안전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응급 상황 발생시 긴급구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번호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요 산책로와 등산로 등 100여 곳에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각각 사용하던 위치 표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 산·하천 등 건물에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토의 통일된 위치 안내 표시 방법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천 산책로 23개소와 삼천 산책로 39개소, 이중호수 데크 8개소, 황방산 등산로변 30개의 기로등 총 100개소에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해마다 건지산, 완산철봉 같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등산로 번호판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점정보시스템(KAIS)에 등록되고, 경찰·소방서·산림청 등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정보가 공유된다. /김민근 기자

#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 54.2% 치명적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 분석한 결과, 2차 사고는 183건이 발생하고 이 중 99명이 사망해 54.2%의 높은 치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이 9.3%인 것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이다.

특히 올해 전북지역에서 승용차간 추돌사고 후 차량의 탑승자 구조 중에 화물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탑승자와 구조자가 사망하는 등 2차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6명이었다. 이는 관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31.5%에 해당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등 점멸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주의를 잘 살피면서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능한 경우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등의 안전조치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면 가까운 졸음쉼터, 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비상점멸등을 켜 후에 주의를 잘 살피면서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학교폭력 있었다”

### 전주 여중생 투신사건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여중생 투신사건에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완산경찰서는 24일 폭행 등 혐의로 A양(15) 등 여중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숨진 여중생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하고 학교에서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숨진 여중생을 불러 얼굴 등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기도 했다.

숨진 여중생은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 59분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숨지기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삶을 비판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중생 부모는 “딸이 목숨을 끊은 배경에는 학교폭력이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이 숨진 여중생에 대해 온라인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강황수 전주완산경찰서장 등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전주한옥마을 관광경찰대' 현판식을 가졌다.

#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경찰 배치된다

### 영어·중국어·프랑스어 능통 경찰 4명 배치... 관광범죄예방·안전 담당

전주한옥마을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관광경찰이 운영된다.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과 관광편익을 위해 관광경찰을 운영하기로 하고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강황수 전주완산경찰서장 등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전주한옥마을 관광경찰대' 현판식을 가졌다.

관광경찰은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광역규모 관광경찰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가 관광경찰 운영에 대한 협의가 하나되어 전주시가 관광경찰대 근무공간을 마련하고 전주완산경찰서에서는 인력을 파견해 운영 하는 협업체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운데 처음으로 전주에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전주한옥마을을 오목대 관광안내소에 자리한 전주한옥마을 관광경찰대는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인력이 활동하며, 영어 2명과 중국어 1명, 프랑스어 1명 등 4명의 엘리트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과 관광관련 범죄예방,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활동을 펼친다. /이상민 기자

# 행락철 졸음운전 사고예방 합동 캠페인

### 전북 고속도순찰대 제9지구대

전북경찰청 고속도순찰대 제9지구대는 지난 23일 순천완주고속도로 북남원 톨게이트 등 5개소에서 도로공사 남원영업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을 행락철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가을철 축제장, 단풍구경, 수확여행 등 나들이 차량의 증

가에 따른 졸음운전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2,241건의 교통사고와 17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0%는 화물차로 인한 사고다.

졸음운전 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사상자수는 감소하다 2016년 381명으로 전년 268명에 비해 42%가 증가했으며, 특히 화물차 졸음운전 사상자는 53%가 증가했다. /이상민 기자

# 덕진경찰, 유관기관과 피해자보호 합동캠페인

덕진경찰서는 24일 오후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전주스마일센터, 전북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등 피해자보호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북대학교 대학생

과 지역주민,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와 각 기관들의 정책활동에 대해 홍보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js.or.kr \*전자우편 : jvjs@hanmail.net

